



금산군의회
GEUMSAN COUNTY COUNCIL

2025. 3. 18.(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32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
의안 검토보고서

검토안건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금성

2025년 지방채 발행 동의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8호
- 제 출 자 : 금산군수
- 제 출 일 : 2025. 3. 6.
- 회 부 일 : 2025. 3. 6.

2. 제안이유

- 경기 불황에 따른 가용 세입예산 감소 및 재정압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 전략적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25년도 한도액 범위 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군민의 불편을 조기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발 행 액 : 354억원 (2025년 한도액 범위 내)
- 발 행 연 도 : 2025년
- 대 상 사 업 : 2개 사업
 - 사회기반시설 투자 : 354억원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액(~24년까지)			2025년			향후투자
		국도비	군비	지방채	국도비	군비	지방채	군비
계	64,933	13,740	11,769	0	1,396	2,628	35,400	0
도시재생사업 (금산 행복드림센터 조성)	41,075	6,000	11,307	0		68	23,700	0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보건소 이전 신축)	23,858	7,740	462	0	1,396	2,560	11,700	0

- 기 채 선 : 군금고은행
 - 기 채 방 법 : 증서차입
 - 발 행 금 리 : 발행시점 금리 적용 ※ '25. 3월 기준 3.94% (군금고 약정서 적용)
 - 2025년 : 354억원 * (상환) 매년 연장 / (이율) 3.94%적용
- (단위 : 억원)

구분	계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합계	443.3	43.9	42.8	41.6	40.4	39.2	38	36.8	35.7	34.5	33.3	32.1	25
원금	354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24
이자	89.3	13.9	12.8	11.6	10.4	9.2	8.0	6.8	5.7	4.5	3.3	2.1	1.0

- ※ 여유재원 발생 시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여 부채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
- 상 환 조 건 : 매년 연장 ※ 자금 확보 시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 경감 계획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11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전으로,
-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인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과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채 발행 최대 한도액인 354억 원을 발행하여 부족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함으로써 주민 수혜도가 높고 시급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소 아쉬운 부분에 대해 몇가지 언급을 하자면, 첫 번째 밀도 있는 세수 예측의 부족이 있었다고 생각됨. 2025년도 예산 편성 이전에 이미 세수 부족에 대한 예측이 있었고, 이에 따른 지방교부금 감소 가능성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교부금 미지급에 대비하여 기금마련, 예비비 확보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 판단됨.
- 두 번째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이 미흡했다고 생각됨. 물론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 조정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나 좀더 면밀한 예산 분석을 통해서 필수적이지 않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 절감 또는 규모 축소가 필요하지 않았나 판단됨.
- 세 번째 수차례에 걸친 설계 변경으로 예산 증가가 이루어진 점은 아쉬움 있음. 예컨대 행복드림센터 건립공사는 수차례의 설계 변경으로 공모 당시에는 176억 원이었으나 2차 공모와 3차례의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최종사업비는 441억 원으로 최초공모 때 보다 265억 원이 증가되었음.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도 2021년 최초 사업계획 때는 114억 원에서 2024년 말 기준 224억원으로 110억원이 증가되었음. 물론 대규모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최초 사업비보다 2배가 넘는 설계 변경은 초기 설계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
- 네 번째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판단됨. 지방채 발행 요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제출한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인 금산행복드림센터 조성사업과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의 사업명과 사업비가 명확히 기재 되어 있지 않아, 지방채 발행 동의안 안건이 의회에 상정된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시기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 2026년에 13억 9천만 원 등 2037년까지 총 89억 3천만 원의 이자 비용을 부담하느니만큼 지방채 발행의 당위성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더불어 자체 세수 확보를 위한 예컨대 우리 군 지방세 중 가장 큰 액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산세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재산세 현장 조사반’ 운영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